

【 주간이슈 】

보험사기 용인도 분석에 의한 보험사기 방지방안

송윤아 부연구위원

□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설문조사 결과 국내소비자의 보험사기 용인도가 미국소비자의 보험사기 용인도보다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.

- 국내소비자의 24.3~35.8%는 각 보험사기 행위를 용인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인 반면 미국소비자의 2.2~4.9%는 각 보험사기 행위를 용인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임.
- 또한 국내소비자의 경우 보험금청구경험이 있는 개인일수록 보험사기를 용인할 가능성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.
 - 이에 반해 미국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서는 보험금청구경험이 있는 개인일수록 보험사기 용인도가 낮다는 것을 보여줌.

□ 국내소비자의 보험사기 용인도가 미국보다 높다는 설문결과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법·제도적 측면의 대응강화를 시사하는데, 이러한 의미에서 보험사기 정의 및 처벌 조항의 신설은 현 시점에서 가장 효율적인 보험사기 방지대책이라 할 수 있음.

- 특히 보험사기의 법적 정의를 통한 범위설정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보험사기 해당 여부를 예측할 수 있게 하고, 이를 통해 그동안 죄의식 없이 행해지던 일부 연성보험사기에 대해 경각심을 제고함으로써 사전적 보험사기 예방효과를 거둘 수 있게 함.

□ 보험금청구경험과 국내소비자의 보험사기 용인도간 정(+)의 관계는 보상직원의 업무평가구조와 업무태도 및 성향 등 현행 보험금지급체제가 보험사기에 취약함을 방증하는 바,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.

- 구체적으로 보상직원의 업무평가에서 조기합의의 비중 등 보험금지급체제가 보험사기 방지 관점에서 효율적이도록 구성될 필요가 있음.

본고는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무관한 작성자 개인의 의견입니다.

1. 서론

- 보험사기의 심각성과 그 피해가 알려지면서 다각적인 보험사기 방지방안이 강구되고 있는 실정임.
 - 금융감독원의 2009년도 보험사기 적발실적 분석결과에 따르면,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,305억원, 적발인원은 54,268명으로 전년대비 금액기준 29.7%, 인원기준 32.3% 증가함.
 - 이러한 적발통계는 고발, 수사, 내외부의 감사, 언론취재 등으로 표면화된 경우이나 보험업계를 비롯한 감독당국에서는 아직도 상당한 수준의 보험사기가 표면화되지 않은 채 잔존하고 있다고 여기고 있음.
- 보험사기에 대한 방지방안의 모색을 위해서는 표면화된 보험사기 뿐만 아니라 표면화되지 않은 보험사기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도 요구되고 있음.
 - 보험연구원에서는 표면화되지 않은 보험사기의 성격을 파악하고 보험사기 방지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보험사기에 대한 대중의 인식 및 태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.
- 본고에서는 국내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‘보험사기에 대한 인식과 태도 설문조사’와 미국소비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유사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양국 보험소비자의 보험사기 용인도를 비교·분석함으로써 보험사기 방지방안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.

2. 보험사기에 대한 대중의 인식 및 태도 설문조사

가. 설문조사의 개요

- 보험연구원은 보험사기에 대한 대중의 인식 및 태도를 파악하기 위해 2009년 10월 서울과 경기도에 거주하는 25세 이상 65세 미만의 성인 남녀 803명을 대상으로 직접방문 면접조사를 실시하였음.
 - 설문문항은 보험사기 용인도, 보험사기 만연도에 대한 인식, 보험사기 발각가